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NEWSLETTER



연락처: 312-985-6050

kasanctuarychurch@gmail.com

<제 1호>

순서

- 위원 칼럼: 손태환 목사 시카고이민자보호교회 TF 위원장/시카고기쁨의교회 담임
-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소식 업데이트
- 이민법 및 행정사항 업데이트 시카고 기관 소식
- 특별 기고문: 최인혜 하나센터 사무총장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위원 칼럼

의자 몇 개 내어놓는 일

손태환 목사 (시카고이민자보호교회 TF 위원장/시카고기쁨의교회 담임)



인류학자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누군가 어느 사회에서 있어야 할 장소를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리를 빼앗긴다는 말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에는 달라졌겠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여자들이 운전하다가 실수를 하면 남자 운전자들이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여자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왜 싸돌아 다녀!” 여자의 자리는 집구석이었지, 집 밖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 공적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를 온전하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필라델피아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두 명의 흑인 남성이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나가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자리를 지킨 그들은 결국 경찰 6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었습니다. 백인에게 당연한 자리가 흑인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서류미비자들(undocumented people), 그리고 다카(DACA) 신분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다름 아닌 ‘장소 없음/장소 상실’(non-place or placelessness)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장소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데서 오는 공포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이들이 서 있을 자리/장소를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자리를 내어주지만, 교회는 자격 없어도 자리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가진 전문성과 교회가 가진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만나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을 도우려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서류 미비자들, 꿈을 꾸는 일조차 힘겨운 다카(DACA) 청소년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 인종차별의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 곁에 교회가 서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취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데/ 의자 몇개 내 놓는 거여 - 이정록, <의자>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의자 몇 개 내 놓는 거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친 이민 생활, 세상 어디에도 맘 편하게 쉴 자리 하나 없는 이들에게 의자 몇 개 내어 놓는 일. 아니, 그들을 위한 의자가 되어 주는 일. 이민자보호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민법 및 행정 업데이트

- 6월 18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 를 종료한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본 프로그램이 다시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
- 이민국 (USCIS) 재정난으로 인해 8월 이후 이민국 직원 대량 해고 예고. 이로 인해 이민국의 업무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영주권 수속 등의 업무가 중단 또는 딜레이 될 예정. 이민국은 청원자들의 수수료로 운영자금이 많이 충당되는데 COVID-19 이후 이민 및 기타 관련 서류 수속자들이 많이 줄면서 제정난이 야기됨.
-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종료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제지 되면서 신규 신청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
- 트럼프 행정부는 6월 22일 성명서 (Proclamation)을 통해 지난 4월 22일 발표했던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중지 선언을 올 연말까지 연장. 본 성명은 미국 노동시장보호라는 명목아래 진행됐으며 국외공관에서 제공되는 의료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비자 및 영주권을 중지.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소식



•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 및 창립예배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5월 27일 일리노이 한인 교회 목회자 및 성도 등 9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민자보호교회의 설립 목적과 앞으로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교회 및 개인 회원을 모집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또 5월 31일 주일에는 창립예배를 통해 일리노이 지역의 교회 커뮤니티에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의 시작을 알렸다.

• 인종 차별 반대 선언문 뉴욕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공동 발표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인종차별 철폐와 정의실현을 위한 성명서를 뉴욕

이민자보호교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는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 인종 및 약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인종차별의 최악이 사라지도록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 한인 피해업체 지원관련 활동

인종차별 반대 집회 후 일어난 약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카고 지역의 한인업체들을 돕기 위해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는 무료 법률 상담 및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피해 복구에 대한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312-985-6050 으로 연결 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자보호교회의 모금활동을 통해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gf.me/u/x8bsvu)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전액 한인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인회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시카고 기관소식

- ### 하나센터
1.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프로그램 한국어 서비스 지원:
 - CARES 법안, 소상공업자 용자 (EIDL) 및 실업수당 등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비디오 제작 및 배포. 300 여명에게 1:1 실업수당 지원 서비스 제공.
 2.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현금지원:
 - 하나센터는 주정부, 사립재단, 또 우리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현금지원 사업을 진행. 주 예산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는 58명의 서류미비 가족에게 \$58,000 을 사립재단 기부금액으로는 96명의 지원자에게 \$65,000을 제공. 향후 시카고 시와 협업하여 \$120,000 의 추가 지원금을 120 가족에게 또 사립재단을 통해 모금된 \$8,000을 16 가정에 지원할 예정.
 3. 인종차별 반대 교육:
 - 하나센터는 전국의 다른기관과 함께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Movement for Black Lives 시민운동가와 함께 인종차별에 관한 토론 및 교육을 6월 16일에 진행. 7,500 명 이상의 참가자가 인종차별 철폐를 향해 의미있는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짐.
 4. 65세 이상의 서류미비자에게 주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법안통과:
 - 하나센터는 Healthy IL와 함께 상기 법률을 통과. 65세 이상의 서류미비 노년층도 건강보험 혜택.

- ### KANWIN
1. KAN-WIN의 “위안부” 운동은 계속.
 - 성명서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되새기며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u/0/my-drive>
 - 갤러리 ‘Awakening’ 문학 잡지 (2020년 5월호)에 실린 기고문 ‘Intention for Change’ 보기 <https://awakeningsart.org/3d-flip-book/awakened-voice-issue-10-intention-for-change/>
 - 2020년 위안부 기림일 행사 : 8월 5일 (수).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지역 구성원 분들의 흔들림없는 지지와 참여를 기대.
 2. 일리노이주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한 **미용사 면허 갱신용 1시간 가정폭력 인식 교육 (무료, 1시간)**
 - 올 9월까지 면허 갱신이 필요한 모든 미용사, 미용 교사, 헤어 브레이더, 헤어 브레이딩 교사, 네일관리사, 네일 교사 및 단체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언어로 교육을 제공.
 - 교육 신청 및 문의 : 847-299-1392 또는 hychung@kanwin.org
 3. 여름 청소년 동료옹호지도자교육 실시 (Youth Peer Advocate Leadership Training and Internship)
 - 8학년부터 12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젠더 폭력 지도자 교육 (1.5시간씩 6세션) 및 인턴십 프로그램 (3시간씩 5세션) 이 6월 30일부터 시작.

- ### KA VOICE
1. 청소년 프로그램
 - 현재 줌 미팅으로 진행. 이번 여름방학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1기 회장이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 재학중인 오상현 군이 인턴으로 일을 하며, 청소년 그룹 리더십 개발 및 커뮤니티 아웃리치 지원.
 2. 매년 6월에 개최되던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Chicago 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잠정 취소.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며, 일정이 다시 잡힐 계획.
 3.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2020:
 - 7월에 28-30에 워싱턴 디씨에서 예정되어 있으나, 향후 코비드 19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 가능.

한인 청년 리더들의 비전: 오늘은 다카, 내일은 모두를 위한 시민권

최인혜 (시카고 하나센터 사무총장)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2012년 시작된 다카는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노동허가증과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70여만명의 수혜자가 있고 이 중 18,000 명의 수혜자가 아시아계이며 또 7,200명 정도가 한국인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다카 수혜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여러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정의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본 프로그램을 없애려 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미국 노동자층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이렇게 유색인종, 특히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문제의 탓을 돌리는 것은 대중이 근본적이고 제도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카는 프로그램의 생성 과정부터 현재까지 다카에 수혜를 받은 젊은 한인 운동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카를 시작하기 전에 **조훈**이라는 한인 대학생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데 실패한 후 추방으로부터 서류미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결과를 이룩했습니다. 또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동안 서류미비가족들의 추방을 중지하고 가족들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서류미비 부모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파 (DAPA)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다카의 종료 발표가 있는 후에는 하나센터와 미교협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입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앞 15일간의 농성, 1,700 마일이 넘는 자전거 캠페인, 뉴욕에서 대법원까지 행진 등 언론과 대중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캠페인을 통해 여론과 정치인,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무모한 움직임에 냉소적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젊은 한인 운동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여 미국 전체에 영감을 주는 일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인동포로서 이 젊은이들의 리더십은 한민족이 오랜 세대동안 보여준 끈기와 의지에서 나온다는 점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안에서 교회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지낼 곳을 제공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먹을 것으로, 또 기도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언제나 환영해주었습니다. 또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도 저희와 참여해서 함께 체포되기도 하는 등 항상 젊은 운동가들에게 확고한 지지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앞으로 지속될 이민자 권익운동에 교회 특히 한인교회의 역할이 많이 기대됩니다.

다카는 사실 아주 근시안적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이민자 권익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한 이민자 그룹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 그룹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난 3년의 활동동안 이민자 권익 운동 안에서도 젊은 서류미비자들만 구제되고 그들의 부모가 보호받지 않는다면, 서류미비 가족들이 계속 찢어져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활동이 무슨 의미인가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인 동포 분들도 역사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IMF 사태 등 본국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문제들은 더 근본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더 체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는 젊은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가족 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2019년 이후 하나센터와 미교협은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구호 아래서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와 시민권 없는 입양인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고 건강보험, 공공주택, 교육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캠페인에 냉소적 반응 또한 많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는 등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70만 여명의 한인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동포 6명 중 한명이 서류미비자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우리 주위에 28만여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 분들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본인들을 숨기고 살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저희의 이웃이고 동포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민 사회에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통해 인종적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시기에 그것이 흑인이든 서류미비자든 가장 취약계층이 보호받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만 우리 자신의 권리도 보호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저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교회가 그 첫 발을 내딛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